



즉시 배포용: 2019년 11월 2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성전환자 추모의 날(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에 CUOMO 주지사는
성전환 및 성별 비순응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행동을 발표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에 성전환자 및 성별 비순응자
개인의 건강보험 이용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 제안 지시**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 DHR)에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 GENDA)에 대한 대중 인식 캠페인 개발 지시**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 조직은 뉴욕주 엠파이어 계획(State's Empire Plan)을
위한 성별 긍정 절차에 대한 장벽 제거**

성전환자 추모의 날(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을 맞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성전환 및 성별 비순응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에 성전환자 및 성별 비순응자의 건강보험에 대한 접근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제안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에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A)에 대한 대중 인식 캠페인을 개발하도록 지시했으며, 이 캠페인은 이 획기적인 법안 서명 1주년을 맞아 1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성소수자 권리 운동의 자랑스러운 고향이며, 올해는 성전환자들을 위한 중요한 보호 조치를 제정함으로써 그 유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성전환자 및 성별 비순응자들은 여전히 매일 차별과 폭력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요한 조치는 워싱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뉴욕이 항상 모든 성소수자를 위해 일어설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뉴욕주는 성전환자 뉴욕 주민들의 건강보험 접근성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환자 및 성별 비순응자들은 여전히 의학적으로 필요한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상업적 의료 플랜에 대한 성전환자 및 성별 비순응자의 접근성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금융서비스부(DFS)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 성별 불쾌감에 대한 보험 적용, 성별 비국한 서비스에 대한 보험 적용 및 노출 전 예방요법(PrEP) 적용 범위에 관한 현재 금융서비스부(DFS) 회람장을 분류하기 위한 규정을 발행
- 건강보험에서 성 정체성 차별 금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발행
- 성전환자 건강에 대한 경험이 있는 외부 항소 대리인이 실용적 가능한 규모로 필요
-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과의 협력을 통해 성별 긍정 서비스에 대한 보험 플랜에서 범주별 배제를 금지하여 개인이 의료 필요성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 인사부(Department of Civil Service)는 뉴욕주 엠파이어 플랜(State's Empire Plan)에서 성별 긍정 절차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장벽을 제거했습니다. 엠파이어 플랜(Empire Plan)은 백만 명 이상의 주 및 지방 정부 직원과 그 가족을 위한 건강 플랜 옵션입니다. 엠파이어 플랜(Empire Plan)의 성별 긍정 서비스 접근성은 뉴욕주 전역에 걸쳐 건강보험사의 모델로 사용되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뉴욕의 노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2019년 1월 25일, Cuomo 주지사는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에 서명하여 성소수자 지역사회에 중요한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인권국(DHR)은 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공 교육 캠페인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캠페인에는 추가적인 내 권리 알기 자료, 법률적 의무에 대한 고용주, 집주인 등을 위한 법적 지침,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A) 서명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포함됩니다.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A)은 고용주, 교육 기관, 임대주, 채권자, 기타 주민이 성 정체성이나 표현에 근거하여 개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성 정체성에 기반한 범죄나 증오를 표현하는 범죄는 뉴욕주 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Linda A. Lacewell 금융 서비스 감독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은 개인의 권리, 특히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연방 정부가 성전환자 및 성별 비순응자에 대한 보호를 계속 짓밟고 있는 가운데, 뉴욕은 마땅한 기본적인 인권을 계속 유지할 것이며, 워싱턴이 모든 개인, 특히 역사적으로 차별을 직면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상기시킵니다."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의 **Angela Fernand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환자 추모의 날(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을 맞아 증오에 기반한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성전환자들의 기억을 추모합니다.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은 성전환자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모든 뉴욕 주민이 인권법(Human Rights Law)에 따른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뉴욕주는 성 정체성에 따른 편견과 차별에 관여하는 이들의 행동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공무원 인사부(Department of Civil Service)의 **Lola W. Brabham**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도력 아래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성과 관계없이 모든 뉴욕 주민들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차별 없이 살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플랜(Empire Plan)의 확장은 성소수자 지역사회에 대한 주지사의 변함없는 지원의 예시이며 전국의 모든 건강 플랜이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